

중국 동북지역 외자기업의 설립 배경과 경영*

-1920년대 滿洲紡績株式會社를 중심으로

김 지 환**

목차

- I. 서론
- II. 중국 동북시장과 일본 방직공업
- III. 일차대전과 중국 동북시장의 변화
- IV.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
- V. 결론

I. 序論

아편전쟁 이래 선진적인 서양의 이기를 수용하여 근대화를 성취하고 이를 통해 자주 독립의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중국의 오랜 염원이었다. 양무운동을 비롯한 근대화운동은 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 전기, 운선, 병기 등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성취하려는 시도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인은 오랜 기간 綿衣를 착용하여 왔으며, 의식주의 수급을 담당하는 방직공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 부문으로서 근대공업의 발전

* “이 논문(저서)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방직공업은 전통적으로 자급자족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가내공업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타 관영이나 민간에서 수공업의 형태로 일부 시장의 수요를 충당해 왔다. 서구로부터 선진적인 기계설비를 도입하여 기계제 방직공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계제 생산은 종래 수공업에 의한 생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전구나 증기와 같은 동력을 구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근대적 생산, 혹은 공장제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¹⁾

근대 이래 중국 방직공업이 타국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외국자본 기업, 특히 일본자본 방직기업(在華紡)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자본 방직기업과 대등한 규모의 생산설비를 보유하여 중국경제의 총체적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²⁾ 이들 외자기업은 중국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편무적 불평등조약과 치외법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설립되고 경영됨으로써 경제 침략의 주체로서 규정되기도 하였다.³⁾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수공업의 형태로 방직공업이 발전해 왔으며, 따라서 기계제 생산에 의한 근대적 공장제

1) 농촌 수공업의 경우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동력은 인력이었다. 드물게 수력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소수의 사례로서 무시될 정도의 수치에 해당된다. Kang Chao, "The Growth of a Modern Cotton Textile Industry and the Competition with Handicrafts", 『China's Modern Economy in Historical Perspective』(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참조.

2) 1931년 在華紡이 중국 방직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방추에서 1,715,792추로서 전체의 40%, 직기에서 15,983대로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嚴中平, 『中國棉紡織史稿』(北京:科學出版社, 1957), 부록표2 및 劉國良, 『中國工業史-近代卷』(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2), 231쪽 참조.

3) 이들 외자기업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金志煥, 『中國近代綿業史의 研究動向 紹介』, 『中國近現代史研究』6輯, 1998 참조.

방직기업의 설립과 발전은 이 지역의 근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계제 방직기업은 1923년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봉천방사창과 1924년 일본자본으로 설립된 만주방적주식회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자본 방직기업인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립 배경과 경영, 그리고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동북지역 면제품 시장의 변화와 수급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중국 동북지역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규정하였으며, 영미 등의 경제블럭에 대항하여 ‘日滿鮮 경제블럭’의 주요한 대상지로 간주해 왔다. 일본 산업자본가들 역시 중국 동북지역을 ‘일본 경제의 생명선’으로 인식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였다.⁴⁾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와 기업 설립 및 경영은 정치, 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말미암아 중국 관내의 在華紡과는 구분되는 개별단위체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재만방에 대한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을 둘러싼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만주방적주식회사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설립된 만주복도방적주식회사, 내외면주식회사 등 在滿紡 설립의 효시로서, 일본에게는 향후 이 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금석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만주방적주식회사나 혹은 재만방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관련 일차자료 및 기타 자료의 부재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과 기간물을 비롯하여 현재 남아있는 일본 정부문서 등을 가능한 수집하여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만주방적주식회사에 대한 연구가 금후 재만방 전체의 형성과 발전, 경영, 국가권력과의 관계, 나아가 동북지역의 사회와 정치, 경제

4) 江口圭一, 『滿洲事變と東アジア』, 『世界歴史』24(東京:岩波書店, 1976), 235-236쪽.

적 변화, 그리고 그 역사적 평가 등과 관련된 제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II. 중국 동북시장과 일본 방직공업

중국 동북지역에서 면제품의 수급은 전통적으로 수직업에 의한 자가소비의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대 嘉慶, 道光 연간에 중국 관내의 상인들이 면포를 이 지역으로 수입하면서 전통수직업의 발전은 정체되었으며, 특히 구미로부터 수입된 면제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중국 동북지역의 수출입 무역에서 면제품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1922년 수입 총액은 1억 5천만 량이었는데, 이 가운데 면사와 면포 등 면제품류가 30-35%를 차지하여 매년 5천만 량 정도가 수입되고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

영국 면포가 최초로 수입된 1882년에는 면제품의 수입액이 120擔에 불과하였으나, 1888년에는 48,275擔으로 급증하였다. 1889년부터는 인도 면사도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1891년 면제품의 수입량이 128,782擔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 면포도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면제품 역시 1897년부터 중국 동북지역으로 수출을 개시하였는데, 러일전쟁 이후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였으며, 마침내 일차대전을 거치면서 수출을 크게 확대하였다.⁶⁾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의 국민경제에서 방직공업은 중추산업으로서 일본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방직공

5) 西川喜一, 『棉工業と綿絲綿布』(上海: 日本堂書房, 1924.7), 475쪽.

6) 石原實, 『滿洲綿業の概觀』(橫濱正金銀行調査課, 1941.5), 1-2쪽.

업은 중일전쟁 이전 일본의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무역 총액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였다.⁷⁾ 1890년 과잉생산에 의한 최초의 공황이 발생한 이후 일본 방직공업은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1894년 8월부터 1895년 4월에 걸쳐 약 9개월간 진행된 청일전쟁은 일본 방직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일본 방직공업은 1896년 총 생산량의 10%, 1899년에는 약 40% 이상을 수출하였으며, 더욱이 수출량의 92% (1894년)-80%(1899년)가 중국 시장을 향한 것이었다.⁸⁾

중국시장 중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일본 방직공업에게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이었다. 만주는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획득한 최대의 시장이었다. 당시 만주무역에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三井物産은 이 지역에 대한 일본 면포의 수출을 국가적 과제로 주창하여 직기 대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던 대관방직, 삼중방직, 금건제직, 천만직물, 강산방직 등 5개 방직기업과 함께 ‘면포수출조합’을 조직하여 만주로의 면제품의 수출 확대를 적극 모색하였다.⁹⁾

1899년 중국 동북의 면제품시장에서 각국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도가 53.1%, 일본이 21.8%, 영국이 1.6%, 중국이 23.4%로서, 일본은 전체 면제품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¹⁰⁾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인도에 의

7) 예를 들면, 1933년 일본의 공업 총 생산액은 78억 7,100만 엔이었는데, 이 중 방직공업의 생산은 30억 1,700만 엔으로서 전체의 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무역에서도 일본의 총 수출액 15억 1,200만 엔 가운데 섬유공업이 26억 9,200만 엔으로 56.2%의 수위를 차지하였다. 1934년 일본의 노동자는 총 240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섬유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07만 2천 명으로서 약 44.6%를 차지하였다. 『ダイヤモンド』, 1939.8, 24-27쪽.

8) 副島門照, 『日本紡績業と中國市場』, 『人文學報』33, 1972.2, 95쪽.

9) 飯島幡司, 『日本紡績史』(東京:創元社, 1949), 169쪽.

10) 楊天溢, 『中國における日本紡績業と民族紡との相克』, 『日中關係と文化摩擦』(1982.1), 250쪽.

해 양분되고 있던 중국 수입 면제품시장이 일차대전을 계기로 붕괴되면서 점차 일본 면사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915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사는 인도 면사의 수입량과 비교하여 26萬擔이나 많았으며, 1918년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면사의 3분의 2가 일본 제품이였다.¹¹⁾

1913년 중국 동북지역으로 수입되는 면사는 462만 6,812해관량이었는데, 1922년에는 1,609만 108해관량으로서 총액에서 약 1,146만 3,296해관량이나 증가하였다. 면포의 경우 1913년에 2,270만 6,297량에 비해 1922년에는 4,907만 8,548해관량으로서 2,637만 2,251량이나 급증하였다.¹²⁾ 일차대전이 발발한 1914년 중국 동북시장으로 수입된 면포 가운데 일본 제품이 3분의 1, 즉 약 33%를 차지하였음에 비해 1920년대 초 일본 면포의 수입은 총 수량의 무려 56%를 차지하였다.¹³⁾

도표 1) 동북에서의 면사, 면포 수입 총액 중 일본 제품의 비율(단위: 兩)¹⁴⁾

연도	수입 총액		일본 제품		수입 총액 중 일본 제품 비중(%)	
	면포	면사	면포	면사	면포	면사
1917	29,491,269	7,147,254	16,998,345	6,278,924	58	87
1918	35,517,976	8,212,062	20,940,546	4,954,271	58	60
1919	54,067,693	13,525,346	36,964,167	5,959,798	68	45
1920	50,079,543	13,365,971	30,803,850	7,007,035	61	52
1921	46,347,826	16,659,074	22,994,838	8,539,929	49	51
1922	49,078,548	16,090,108	28,253,408	8,463,811	57	53

11) 西川喜一, 『棉工業と綿絲綿布』(上海: 日本堂書房, 1924.7), 251쪽.

12) 小川透, 『滿洲に於ける紡績業』(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 1923.10), 4쪽.

13) 小川透, 『滿洲に於ける紡績業』(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 1923.10), 8쪽.

14) 小川透, 『滿洲に於ける紡績業』(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 1923.10), 13쪽.

그렇다면 일본 방직공업이 동북시장에서 이와같이 약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일찍이 일본 방직공업이 생산한 면사포가 중국시장에서 인도 면제품과 경쟁하여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지와 후원이 있었다. 일본방직연합회는 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에 수출세의 폐지를 청원하였으며, 마침내 1894년 수출세의 폐지를 통해 일본 면제품은 중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1896년 원면 수입세를 철폐하여 면제품 생산에서 원료코스트를 저하시킴으로써 당시 중국시장의 주요한 수입 면제품인 인도 제품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⁵⁾

이와같이 19세기 말 일본 방직공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특히 동북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강력한 후원과 지지가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지지는 일차대전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만주로 수입되는 일본 면제품의 수입 가격을 적극 경감함으로써 인도 면포나 미국, 영국 등 구미산 면포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전 시기에 수입 일본 면제품 가격의 경감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일본 면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는 바로 삼선연락운임제와 국경 통과 화물에 대한 관세 경감조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일본은 한반도철도와 만주철도를 잇는 안봉철도를 부설하여 일본(대판)-해상운송-한반도 종관철도-압록강철교-안동-안봉철도-봉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일본(대판)-해상운송-대련-남만주철도-봉천의 유통경로에 비해 운임 코스트를 크게 경감할 수 있었다. 더욱이 새로운 유통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동북지역에 대한 자국 상품의 수출을 보다 확

15) 東洋紡績株式會社, 『東洋紡績七十年史』(大阪, 1953.5), 84-86쪽.

대하기 위해 일본철도-조선철도-안봉철도를 경유하는 三線連絡 貨物에 대해 약 30%의 특별 할인 운임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마침내 1914년 5월 1일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 삼선연락운임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봉철도를 통과하는 화물 가운데, 면사, 면포, 기타 면제품, 한국미, 마대, 모자, 맥주, 염간어, 생과, 곤포, 도자기, 등제품 등 12개 품목에 대해 특별 할인 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이다.¹⁶⁾

더욱이 일본정부는 만한간 국경 통과 화물에 대해 관세를 3분의 1 경감함으로써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 일찍이 러일 전쟁 종결 직후인 1905년 12월 22일 중일 간에 체결된 <會議東三省事宜正約>의 <附約> 제11조에서는 “滿韓 국경 사이의 육로 통상에 대해서는 상호 최혜국조약에 따라 대우한다”¹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중러 간의 국경무역에 대해 관세의 3분의 1을 경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철도를 통해 육로로 중국 동북지역으로 수출하는 일본 상품에 대해서도 최혜국조약에 따라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해혁명 직후 일본 외무성의 특명전권공사 伊集院彦吉은 陸徵祥 외교총장을 방문하여 조선철도를 통해 만주로 직통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의 3분의 1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줄도록 요구하였다. 마침내 1913년 5월 29일, 북경에서 일본특명전권공사 伊集院彦吉과 총세무사 사이에 <朝鮮南滿往來運貨減稅施行辦法>을 체결하고 만한 간의 교역 상품에 대해 관세 3분의 1의 경감을 규정하였다.¹⁸⁾

면포 1梱(20反) 당 大阪을 출발하여 대련까지 선박 운임은 70전, 선적비

16) 金志煥, 『安奉鐵道 부설과 중국 동북지역 신유통망의 형성』, 『중국근현대사연구』87輯, 2013.12, 328쪽.

17) 北京大學法律係國際法教研室編, 『會議東三省事宜正約-附約』, 『中外舊約章彙編』第二冊-1(北京:三聯書店, 1959), 342쪽.

18) 北京大學法律係國際法教研室編, 『朝鮮南滿往來運貨減稅施行辦法』, 『中外舊約章彙編』第二冊-2(北京:三聯書店, 1959), 893-895쪽.

용 및 보험료 31전, 대련세관의 수입세 3엔 48전, 봉천까지의 철도 운임 및 수수료 94전, 운송 부대비용 16전으로서 운송 총 비용은 5円 59전에 달하였다. 이에 비해, 大阪발 안동 경유, 봉천 도착 면포의 운송비용을 살펴 보면, 대판-봉천 간 철도 운임 2엔 9전, 운송 보험료 25전, 안동세관 수입세 2엔 32전, 철도 발착 수수료 4전, 운송 부대비용 6전으로서 총 4엔 76전에 달하였다.¹⁹⁾ 이렇게 볼 때, 안동을 경유하는 육로 수송이 대련 경유에 비해 면포 1梱의 운송비에서 83전이나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경무역에서 3분의 1의 감세 특혜와 더불어 일만선 연계철도의 할인 운임이 실시되자, 운송비 및 제비용에서 대련항에 비해 안동은 채산상 매우 유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중국 동북지역으로 수입되는 상품, 특히 면사, 면포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안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²⁰⁾ 1912년까지 만주로 수입되는 일본 면포는 대련 경유가 90%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반면 안동 경유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3년에 이르러서는 이와같은 상황이 전도되어 안동 경유가 68%, 대련 경유가 32%, 더욱이 1914년에는 안동 경유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 제품은 국경관세 3분의 1 감세의 특혜로 말미암아 안동 경유가 증가하여 60% 이상을 차지하며, 대련항을 거쳐 수입되는 것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²¹⁾라는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관세 등 일본의 정책적 결과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다.

19) 金志煥, 『安奉鐵道 부설과 중국 동북지역 신유통망의 형성』, 『중국근현대사연구』87輯, 2013.12, 329쪽.

20) 西川喜一, 『棉工業と綿絲綿布』(上海: 日本堂書房, 1924.7), 477쪽.

21) 小川透, 『滿洲に於ける紡績業』(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 1923.10), 70쪽.

도표 2) 대련과 안동의 면제품 수입량 비교(1910-1914)²²⁾



위의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면제품의 유통 루트가 관세 경감과 삼선연락운임제의 실시 이후 기존의 대련으로부터 안동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초 중국 동북시장으로 수입되는 면포의 수량을 살펴보면 일본 면포가 총 수입량의 무려 56%를 차지하여, 총 수입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1914년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일본정부는 안동을 경유하는 유통망을 통해 동북시장에서 일본 면포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으로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2) 1910년도에 대련 경유는 394,544反임에 비해 안동 경유는 60,310반, 1911년에는 대련 경유가 582,159반, 안동 경유가 74,986반, 1912년에는 대련 경유가 642,368반, 안동경유가 65,260반으로 대련을 통한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선연락운임제가 실시된 1913년 이후 이와같은 추세는 크게 변하여 1913년 대련 경유가 591,939반임에 비해 안동 경유가 1,180,770반, 1914년에는 대련 경유가 120,817반임에 비해 안동 경유가 2,277,841반으로서 안동 경유가 대련을 압도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安奉線割引疑義』, 『時事新報』, 1915.2.27의 안동, 대련 면포 수입액의 수치로부터 작성.

23) 金志煥, 『安奉鐵道 부설과 중국 동북지역 신유통망의 형성』, 『중국근현대사연구』87輯, 2013.12, 331-332쪽.

Ⅲ. 일차대전과 중국 동북시장의 변화

일차대전의 발발은 중국 면제품시장에서 제품의 수급에 일대 변혁을 초래하였다. 구미 각국이 전시생산체제로 돌입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던 공산품의 수량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다시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전시호황을 발생시켜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일차대전 시기 동안 중국으로 수입된 면사의 수량을 살펴보면, 1913년을 100으로 계산하여 1914년에는 94.69, 1917년에는 77.78로 감소하며, 1920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1925년 이후에는 20 이하로 급감하였다.²⁴⁾ 수입 면사의 급감은 당연히 면사의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으며, 중국 방직공업은 공전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²⁵⁾

이와같이 일차대전 시기 중국 방직공업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성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자립에 매진하면서 일본 등 해외로부터의 면제품 수입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자국 내의 산업 발전을 조장하기 위해 公司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공사업 보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공사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서 관세 개정을 통해 보호관세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관세 개정은 일찍이 1912년 중국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영국, 미국, 독일 등 열강이 수용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1917년 중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차대

24) 陳眞編, 『中國近代工業史資料』第四輯(北京:三聯書店, 1961), 311-313쪽.

25) 이 기간 동안의 면사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16번수 면사 1捆의 생산 비용은 1916년 97.56兩이었음에 비해, 판매 가격은 103兩으로서 5.45兩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윤은 1917년 26.40兩, 1918년 15.33兩, 1919년에는 50.55兩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濱田峯太郎, 『支那に於ける紡績業』(上海:日本堂書店, 1923), 20-21쪽.

전에 참전하자 종전 이후 중국의 관세 개정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였다. 대전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중국은 1918년 관세자주권의 주창과 함께 관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침내 1919년 8월에 이르러 개정된 신관세에 근거하여 수입세율을 적용하였다.²⁶⁾ 더욱이 개정된 관세는 중국 측이 제기한 관세자주권 회복이라는 주지를 반영하여 개정 이후 2개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개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마침내 1922년 2월 5%의 관세와 더불어 증가 2.5%의 부가세 징세를 승인한 <중국 관세에 관한 조약>이 영미 등 9개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1919년의 관세 개정에서 실질 세율은 3.5%로 여기에 子口半稅 1.75%를 추가하여 수입품 과세율은 5.25%였는데, 1922년의 개정으로 7.5%로 상승하였다.²⁷⁾

특히 관세 개정을 통해 20번수 이하의 中, 太紗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기술상의 이유로 중저급품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던 중국 방직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관철된 것이다. 다시 말해, 관세 인상은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던 주종 상품인 16번수 면사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국 국내시장의 자립을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방직공업의 발전으로 20번수 이하의 태사 면사는 머지 않아 수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 우리 방직업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중국 방직공업의 발전은 일본 방직공업의 가장 두려운 적이다.”²⁸⁾ “중국의 관세는 대부분 종량세이므로 고급 고가품에 유리하고 하급 저가품에는 불리하다. 따라서 일본의 하급 면제품은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결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일본 제품이다”²⁹⁾라는 기록에서도

26) 米谷榮一, 『近世支那外國貿易史』(東京:生活社, 1939), 131쪽.

27) 北京大學法律係國際法教研室編, 『九國間關於中國關稅稅則之條約』, 『中外舊約彙編』第三冊-1(北京:三聯書店, 1959), 342쪽.

28) 井上潔, 『我國の紡績業に就て』(神戸:神戸高等商業學校商業研究所, 1921), 27쪽.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일차대전 직전인 1913년에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면사의 수량은 전체 소비량의 37%에 불과하였으나 대전 직후인 1918년에는 면사 자급률이 70% 이상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대중국 면사 수출량은 1926년이 되면 생산의 10% 이하로 하락하였다.³⁰⁾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사이에 관세, 운임 등은 양자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종연방적주식회사 사장 武藤山治는 상해를 시찰하면서 방직기업 설립의 붐을 목격한 이후,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시간이 길며, 자국산 원료면화가 풍부한 중국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관세 장벽과 높은 임금, 조업시간의 통제에 묶여있던 일본 방직공업으로서는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방직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³¹⁾

일본 방직공업의 동업공회인 日本紡績連合會 역시 관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히 만주에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을 직접 설립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지적하며, “만일 만주 소재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면 중국 제품과 비교하여 보다 저렴한 노임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과 기타 운임 등의 절약으로 1浬당 30여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래 만주에서 방직기업을 설립한다면 경영상 매우 유리할 것”³²⁾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방직공업에서 생산된 면사포가 만주시장으로 수출될 경우 부담해야 할 세율과 상해 등 중국 관내에서 생산된 면제품의 이입 세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22년 관세 개정 이전에 일본 수입품은 3분 5리의 수

29) 大阪市商工課, 『支那に於ける紡織工業』,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363號, 1922, 50쪽.

30) 高村直助, 『近代日本綿業と中國』(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82), 114쪽.

31) 종연방적 사장 武藤山治는 “국내에서 방직공업의 발전이 비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일본은 청일전쟁의 결과 중국에서 設廠權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가능한한 중국 내에서 일본 기업을 건설함으로써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紡績業の前途』, 『萬朝報』, 1921.4.22.

32) 『滿洲に於ける紡績工業』,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368號, 1923.4, 48쪽.

입정세와 그 반액인 1분 7리 5毛의 통과세를 합쳐 총 5分 2厘 5毛를 부담하는데 비해, 중국 제품은 연안무역세와 기타 부과세를 합쳐 최고 1분 5리 상당의 세액을 부담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1922년 관세 개정으로 말미암아 신관세의 적용을 받는 일본 면제품은 도합 7분 5리의 세 부담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 중국 제품은 여전히 1분 5리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 중일 양국 면제품 사이에 세금 부담에는 무려 6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³³⁾

도표 3) 만주로 수입되는 일본 제품과 중국 제품의 세율 및 운임비 등 비교 (1923)³⁴⁾

국별	유통경로	제품	단위	관세(円)	운임(円)	제비용(円)	합계(円)
일본산	關門-大連-奉天	면사	1俵	7,956	7,140	0.500	15,595
		면포	同	11,385	3,380	0.500	15,245
중국산	上海-大連-奉天	면사	同	1,975	4,430	0.500	6,905
		면포	同	2,565	3,360	0.500	6,425

위의 표에서 명확히 나타나듯이 일본에서 생산된 면제품이 대련항을 통해 봉천으로 수입될 경우 상해에서 생산된 중국산 면제품과 비교하여 운임, 관세 등 제세 부담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종래 만주 면제품시장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던 일본 방직공업에게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일차대전 종전 직후 21개조약에 반대하는 5.4운동이 발생하고, 연이어 일화배척운동 및 국산품 장려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각지에서는 직기의 증설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1923년에는 여대회수운동이 발

33) 『滿洲に於ける紡績工業』,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368號, 1923.4, 47쪽.

34) 『滿洲に於ける紡績工業』,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368號, 1923.4, 47쪽.

말하여 대일경제절교운동이 확산되었는데, 특히 상해, 무한 등 장강유역에서 일본상품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게 실시되었다. 경제절교란 일본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의 모든 교섭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말하자면 일본인이 중국에서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이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회사에 고용되지 않으며, 일본신문에는 광고도 게재하지 않으며, 화물을 일본상선에 적재할 수도 없었다. 일본의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도 없었으며, 일본의 은행에 저축해서도 안되었다. 일본화폐를 수령하지 않으며 일본의 의원에 통원하는 일조차 금지되었다.³⁵⁾

그런데 일화배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은 공업이 가장 발전한 상해, 무한 등 장강유역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종래의 일화배척운동이 학생 등의 지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경제절교운동은 자산계급의 동업단체라 할 수 있는 上海總商會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³⁶⁾ 이러한 사실은 일화배척운동의 배후에 일차대전 시기 급속히 성장한 중국공업과 자산계급의 역량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³⁷⁾

일화배척운동이 상해 등 장강유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 비해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2월 26

35) 菊池貴晴, 『中國民族運動の基本構造』(東京:汲古書院, 1974), 205쪽.

36) 『武漢地方の排日運動最近の情況』,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371號, 1923.7, 48쪽.

37)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화배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던 이유를 이 지역에서 자본주의적 공업의 발달이 충분치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산계급의 성장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상해 등에서 일화배척운동이 민족산업의 발달을 지향한 자산계급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국영, 관영기관에 의한 공업의 발달이 진전되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공업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상해 등 지역에서 일화배척운동이 민족자산계급의 지원 하에 전개된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菊池貴晴, 『中國民族運動の基本構造』(東京:汲古書院, 1974), 134쪽.

일 여대 조차 만기에 맞추어 상해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대회수운동이 발생하여 학생과 지방상인의 시위행렬과 배일의 기세가 드높았다. 5월 9일 국치기념일을 전후하여 배일운동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그러나 만주는 친일과 장작림의 지배지역이며, 또한 일본 만철의 세력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배일 행위가 표면화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거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³⁸⁾라는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수출면직물동업조합연합회 역시 “만주에서는 화중, 화남지역에서와 같이 일화배척운동이 노골적으로 전개되지는 않고 있다”³⁹⁾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일화배척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것 역시 이 지역에 일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조건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 동북지역이 상해 등 기타 지역과 비교하여 일화배척운동이 극렬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관민들 역시 배일의 감정과 정서를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계제 방직기업인 奉天紡紗廠의 설립 목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봉천방사장은 봉천성정부의 주도로 만주에서 최초로 설립된 중국자본 방직기업으로서, 총 자본액 450만 원을 투자하여 경영을 시작하였다.

봉천방사장의 설립 취지서를 살펴보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면제품을 대체한다는 목적을 뚜렷히 표방하였다. 취지서는 “3천만 동삼성면이 필요로 하는 면사포를 상당 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전 이래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이권의 유출이 막대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1919년 봉천성장이 방직기업의 설립을 제창하는 동시에, 봉천성 재정청에 명령을 발하여 관민합판으로 설립하게 되었다”⁴⁰⁾

38) 日本輸出綿織物同業組合聯合會, 『支那に於ける綿織物に就て』(1924.2), 16쪽.

39) 『奉天綿絲布狀況』,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382號, 1924, 82쪽.

40) 『滿洲新聞』, 1923.1.18.

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북지역 수입 면제품의 최대 부문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방직공업의 발전, 특히 만주에서 중국자본 방직기업의 설립에 주목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기업 설립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 내에서도 “중국 내지에서 우리 면사가 점차 세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주로 중국인이 경영하는 방직기업이 증가하여 외국 수입품을 상당 부분 대체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만주에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다....만주에서도 중국 면제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본 태사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종래 만주 각지에서 소비되는 태사 면사는 대부분 일본 수입품이었으나 이후 점차 쇠퇴하여 올해 1월 이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상해 면사, 청도 면사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⁴¹⁾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차대전 기간 동안 일본 방직공업이 장족의 발전을 성취하면서 구미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번수, 고급품의 생산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히 저번수, 중저급품의 생산라인을 중국 및 동북 현지로 이전하여 방직기업을 설립하는 경영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동북지역은 상해 등과 비교하여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면제품의 수요는 대부분 20번수 이하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면제품이나 혹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어 유입된 면제품 역시 20번수 이하가 70-80%에 달하였다.⁴²⁾ 20번수 이상의 중번수 및 세번수 면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숙련공이 필요하지만 저번수, 저급품의 생산에는 비숙련 일반직공이나 혹은 여공 및 유년공의 사용으로도 충분하였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노동력의 공급

41) 日本外務省, 『支那紡績業ニ關スル雜報』分割二(1923), 67쪽.

4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調査課, 『滿洲の纖維工業』(大連, 1931), 17쪽.

역시 풍부하여 생산코스트에서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들 수 있다.

- 1) 지가 및 건축 자재 등이 저렴하며, 교통이 편리하다
- 2) 수질이 양호하다
- 3) 석탄의 공급이 편리하고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
- 4)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하며, 임금이 저렴하다.
- 5) 원동력 비용도 저렴하다
- 6)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다.⁴³⁾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 동북지역에 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관세 등의 장벽을 회피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장과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만주에서 일본자본으로 방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면, 관세와 운임의 절감, 저렴한 노임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더욱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면은 세번수의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중저급품의 생산에는 사용될 수 있었다. 생산품의 판매시장을 위해서도 영구를 비롯하여 대련 등 항구를 갖추고 있었으며, 나아가 철도를 통해 하얼빈을 거쳐 멀리 시베리아 및 내외몽고의 수요까지 감당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⁴⁴⁾ 이러한 이유에서 1920년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본자본으로 방직기업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속속 입안되었다.

43) 滿洲紡績株式會社, 『滿洲紡績株式會社設立趣意書』(大連, 1924.10.12), 5-6쪽.

44) 『滿洲に於ける紡績工業』,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368號, 1923.4, 48쪽.

도표 4) 1920년대 일본자본 방직기업의 설립계획⁴⁵⁾

기업명	관련기업	소재지
만주방직주식회사	富士瓦斯紡績	심양
남만방직주식회사	和歌山紡績	봉천
繞紗廠工場	上海棉紗廠	봉천
내외면주식회사	내외면주식회사	금주
不詳	福紡	철령
不詳	不詳	영구

IV. 만주방직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

일차대전 시기 전시호황에 힘입어 급성장한 중국 방직공업과 종전 직후 단행된 관세 개정으로 말미암아 중국, 특히 만주로 수출되는 일본 면제품의 수량이 급감하자, 동북지역에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면제품을 생산한다는 구상이 제기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만주에서 일본자본으로 최초로 설립된 방직기업인 만주방직주식회사의 설립 경위는 현재 일본 외무성에 남아있는 『滿洲紡績株式會社設立趣意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일차대전 이후 일본 방직공업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한 배경으로서 전후 물가의 상승, 임금의 상승, 공장법 적용으로 인한 심야작업의 금지, 노동운동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 내부적 요인과, 중국 방직공업의 발전 및 관세 개정 등 외부적 요인을 들고 있다.⁴⁶⁾

만주방직주식회사는 요양에 위치하여, 1923년 6월부터 공장, 사무소, 창고, 기숙사를 비롯하여 병원, 구락부 등의 부속건물을 속속 건설하고 마침

45) 『滿洲に於ける紡績工業』,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368號, 1923.4, 48쪽.

46) 滿洲紡績株式會社, 『滿洲紡績株式會社設立趣意書』, 1924.10.12, 4-5쪽.

내 1924년 9월 초순 공사를 완공하였다. 만주방적주식회사의 경영진은 1924년 10월 19일 요양 및 만철 연선 각지로부터 중국인 및 일본인 유지 200여 명을 초치하여 성대한 개업식을 거행하였다.

만주방적주식회사는 총 자본금 500만 원, 불입자본금 400만 원으로서, 공장부지는 총 5만 평에 달하였으며, 조차료는 평당 5厘에 상당하였다. 기계설비는 방추 3만 추, 직기 1,000대를 구비하였다. 면사부문에서는 하루 주야 가동으로 16번수 평균 400磅의 면사 75梱을 생산하여 1개년에 약 320 일 작업으로 2만 4,750梱을 생산목표로 정하였다. 면포부문에서는 직기 1,000대를 가동하여 대당 평균 생산 11磅 粗布 14反 10碼로 하루 2,750反 생산과 연 57만 7,500反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다.⁴⁷⁾

도표 5)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비 내역 및 소요 경비⁴⁸⁾

항목	내역	수량	비용	총비용
기업 창립비	기업 창립시까지의 일체 비용		5만원	
철도인입선 공사			1만원	
공장 및 기타 부속건물 공사비	공장, 방적부	2500평(평당 70圓)	17만 5천원	52만 5천원
	공장, 직포부	2500평(평당 70圓)	17만 5천원	
	창고	500평(평당 50원)	2만 5천원	
	수용품 창고	100평(평당 50원)	5천원	
	기관실, 변전소	100평(평당 100원)	1만원	
	수선실	100평(평당 50원)	5천원	
	2층 사무실	100평(평당 200원)	2만원	
	기숙사, 사택 출입문 및 잡공사	1500평(평당 60원)	9만원 2만원	
방추 및 부속기기	방추	3만추	1추당 47원	141만원

47) 日本外務省, 『支那各種紡績會社報告(6) : 滿州紡績株式會社』(1925), 25-26쪽.

48) 日本外務省, 『起業目論見附屬說明書』, 『支那各種紡績會社報告(6) : 滿州紡績株式會社』(1925), 4쪽.

중국 동북지역 외자기업의 설립 배경과 경영

항목	내역	수량	비용	총비용
	插束荷造, 기타기기 針布, 기타부속품 木管, 기타용구 재료 및 공임			5만원 10만원 5만원 5만원
직포기 및 부속기기	직포기 준비 기타 기기 仕上 세기기 기타 부속 기구 재료 및 공임	1천대(1대당 400원)	40만원 10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62만원
전기기기, 전도장치	전압기, 배전반 전동기 전등 전선전주 기타용품 샤프트, 벨트, 로프등 기타재료 및 공임	1식(1200킬로와트)	6만원 7만원 2만원 2만원 10만원 2만 5천원	31만 5천원
방화장치 등	보일러, 파이프 등 난방용 풍차 등 방화장치(수조포함) 수선용 제공구 기타 기기		6만원 4만원 6만원 3만원 3만원	22만원
이자 및 잡비	이자 잡비, 직공 모집 및 양성비		10만원 5만원	15만원
유동자금				45만원

주목할 점은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 일본정부의 국책적 지지와 후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만주에서의 일본 국책회사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적극적인 개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책기관이 식민지나 혹은 반식민지에서 외면상 기업의 형식을 취한 것은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이러한 형식은 러시아의 동철철도공사나 일본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그리고 영국의 동인도회사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⁴⁹⁾ 만주방적주식회사는 기업의 경영 실적 여하에 따라 장래 일본 방직공업이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한다는 의미에서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 방직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시금석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정부와 방직업계는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주의를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⁵⁰⁾

이와같은 사실은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자본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遼陽의 일본 영사가 内田康哉 외상에게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립 경위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10만 주에 달하였다. 그런데 주식을 인수한 대주주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본 방직업계의 대표회사인 富士瓦斯紡績株式會社가 3만 주,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2만 5천 주로서 최대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동회사의 주식을 수용한 주주는 대부분 일본의 자산가들로서 지역별로는 동경 2만 4천 주, 대련 9,770주, 神戶 4천 주, 요양 2,030주, 大阪 1,400주, 神奈川 1,000주, 靜岡 1,000주 이밖에 兵庫縣 및 熊本縣 260주, 이밖에 만주 각지(봉천, 안산, 낙성, 연대, 안동) 1,040주, 하얼빈 500주로서 합계 10만 주에 달하였다.⁵¹⁾ 이러한 사실은 만주방적주식회사가 일본 방직업계의 주도적인 투자와 더불어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고 있다.

주식의 보유 비율로 보아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정책 결정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및 富士瓦斯紡績株式會社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만주방적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사와사방적 측에서는 商談役으로 和田豊治, 전무이사에 遠藤宗六, 이사 持田巽, 朝倉每人, 감사 小倉清 등을 추천하였으며, 남만주

49) 金志煥, 『鐵道로 보는 中國歷史』(학고방, 2014), 397쪽.

50) 日本外務省, 『滿州紡績會社ノ業態ニ關スル件』, 『本邦會社關係雜件』第七卷(1926), 11쪽.

51) 日本外務省, 『支那各種紡績會社報告(6):滿州紡績株式會社』(1925), 4쪽.

철도주식회사에서는 이사 和田敬三, 감사 向坊盛一郎 등을 추천하였다.⁵²⁾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이사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장 伊藤文吉

전무이사 遠藤宗六 전 富士瓦斯紡績 川崎 공장장

상무이사 森上高明

이사 持田巽 富士瓦斯紡績 전무이사

倉地鐵吉 東亞勸業 社長

朝倉每人 富士瓦斯紡績 小山 공장장

河合良成 日華生命 상무이사

渡邊德重 遼鞍毎日新聞 사장

島田好 전 요양지방사무소장

和田敬三 만철 이사

감사 小倉清 富士瓦斯紡績 경리부장

岡崎忠雄 神戶岡崎銀行 전무이사

山田三平 상품신탁 사장

內山勝雄 만철 전임감사

向坊盛一郎 만철 전임감사

그러면 만주방적주식회사는 왜 요양지역을 기업의 설립지로서 선택하게 되었을까? 주지하다시피 요양은 일본 만주수비군 사단사령부의 소재지로서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방적주식회사는 국책회사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자본이 대량으로 투입되었을 뿐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52) 日本外務省, 『支那各種紡績會社報告(6):滿州紡績株式會社』(1925), 4쪽.

설립 지역을 요양으로 결정한 사실 역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방직기업의 설립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시장과 상품의 유통망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따라서 간선 철도인 남만주철도의 연선지역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철도 연선지역에 방대한 기업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의 지출이 불가결하였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요양에 위치한 자사의 철도 부속지를 만주방직주식회사의 공장부지로 저렴한 지대로 대여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설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봉천이나 기타 남만주철도의 철도역에서 가까운 연선 요지에 공장부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자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부지를 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다행히 우리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로부터 요양의 철도 부속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매우 저렴한 지대로 대여받는 특전을 얻었다”⁵³⁾라는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만철과 부사와사방적주식회사는 만주방적주식회사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방직업계의 영수이자 부사와사방적주식회사 사장인 和田豊治는 이지역을 시찰하고 만주방적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명하며, 설립과 경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더욱이 자신의 감독 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유력한 기사장을 파견하였다. 이와함께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만주방적주식회사가 동북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방직기업으로서 그 의의가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설한 발전을 조장하는 의미에서 저렴한 지대로 부지를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함께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인수할 뜻을 표명

53) 滿洲紡績株式會社, 『滿洲紡績株式會社設立趣意書』(1924.10.12), 9쪽.

하였다.⁵⁴⁾

만철이 대어해 준 철도 부속지는 공장과 기타 건축물을 부설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었다. 즉 이 지역은 지반이 매우 견고하여 지하 17척을 파 내려가도 수맥층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지층이 주먹만한 자갈돌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가 견고하였다. 또한 현지의 건축재료가 매우 저렴하여 煉瓦와 같은 자재도 한 장에 1전 이하로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에 필요한 수자원은 인근 太子河의 流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수질도 상당히 양호하였다.

더욱이 만철은 만주방적주식회사에 저렴한 석탄을 공급함으로써 생산 설비의 가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요양은 동계에 기온이 낮아 보온이 필요한 기간이 일본과 비교하여 약 3개월 정도 길어 석탄의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요양 인근에는 바로 만철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무순탄광이 있었다. 일찍이 1909년 9월 4일 청조와 일본은 <東三省 交渉五案條款>을 체결하고, 조약의 제3조에서 일본이 무순탄광을 개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⁵⁵⁾ 무순탄광은 매장량이 무려 58,000만 톤에 달하였으며, 만주방적주식회사에 분탄을 톤당 9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⁵⁶⁾

요양 현지에는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하였으며 만철 연선의 기타 지역과 비교하여 임금이 저렴하였다. 1926년 2월 현재 만주방적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노동자는 52명(남 38명, 여 14명), 중국인 노동자는 총 2,861명에 달하였다. 중국인 직공 가운데 통근공이 1,199명(남자 1,017명, 여 182명), 기숙공이 1,662명(남 1,591명, 여 71명)이었다.⁵⁷⁾

54) 滿洲紡績株式會社, 『滿洲紡績株式會社設立趣意書』(1924.10.12), 9-10쪽.

55) 北京大學法律係國際法教研室編, 『東三省交渉五案條款』, 『中外舊約彙編』第二冊-2(北京:三聯書店, 1959), 599쪽.

56) 滿洲紡績株式會社, 『滿洲紡績株式會社設立趣意書』(1924.10.12), 9쪽.

도표 6) 일본과 중국 동북지역의 방직노동자 임금 비교⁵⁸⁾

지역	일급(엔)		월급(엔)	노동시간
요양	남공	30-45	6원(小洋)	12시간
	여공	25-30		
봉천	남공	50-65	12원(小洋)	10시간
	여공			
일본	남공	1.70		11시간
	여공	1.30		

원료 면화와 관련하여 만주방직주식회사는 중국산 면화와 인도산 면화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면화는 상당 부분 일본면화주식회사와 동양면화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일부는 大阪의 부사와사방직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⁵⁹⁾ 중국산 면화의 경우 일찍부터 일본정부는 만주에서 면화의 개량 및 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만주방직주식회사가 설립된 1924년을 전후하여 만주에서 면화를 개량하고 증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일찍이 1907년 관동청은 농사시험장을 개설하고 면화를 시험적으로 생산하였다. 이후 1922년부터 본격적으로 면화의 개량, 증산에 착수하여 미국 면종 가운데 동북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별하여 다음해부터 대대적으로 파종 면적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함께 동북지역에서 일반농가에 면화의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파종법, 시비법 등도 보급하였다. 이러한 결과 1924년이 되면 민간에서 면화를 파종한 면적이 160정보로 증가하였다. 이에 관동청은 농사시험장을 통해 우량면종의 선종 및 개량, 그리고 파종법에 대한 연구를 일층 진전시켰다. 특히 1924년 9월 관동청은 만주에

57) 日本外務省, 『滿洲紡績會社ノ業態ニ關スル件』, 『本邦會社關係雜件』第七卷(1926), 14쪽.

58) 滿洲紡績株式會社, 『滿洲紡績株式會社設立趣意書』(1924.10.12), 10쪽.

59) 日本外務省, 『滿洲紡績株式會社』, 『本邦會社關係雜件』第六卷(1925), 4쪽.

서 면화의 개량 및 증산을 전담할 기구로서 만주면화협회를 설립하여 면종의 배급, 재배법의 지도 및 생산된 면화의 공동 판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면화의 수매 및 배급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1926년 11월 만주면화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⁶⁰⁾

만주면화재배협회의 설립은 일본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립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요양지방은 남만주에서 면화 생산의 중심지로서 1924년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립을 전기로 면화의 증식과 개량이 적극 추진되었다.⁶¹⁾ 만주면화재배협회 및 만주면화주식회사는 생산자를 유치하고 지도하였으며, 면화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현지 농민들이 면화의 재배가 이윤이 남는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면화의 생산에 적극 뛰어들었다. 아래의 표는 만주면화주식회사의 지도 하에 1924년 이래 면화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표 7) 만주면화주식회사를 통한 면화 재배 면적의 추이 (1924-1930)⁶²⁾

연도	재배면적(町)	수확량(斤)	수매량(斤)
1924	163	146,781	50,505
1925	822	575,190	369,075
1926	780	372,792	151,746
1927	1,342	610,000	366,000
1928	1,565	654,988	348,000
1929	1,631	1,557,154	722,358
1930	1,707	1,137,432	519,523

60) 關東廳農林課, 『關東州に於ける棉作獎勵』(大連, 1934.10), 1-2쪽.

61) 滿鐵調査月報編輯部, 『滿州に於ける紡績業及棉花栽培の將來』, 『滿鐵調査月報』13卷 11號, 1933.11, 260쪽.

62) 關東廳, 『關東州に於ける棉作獎勵』(大連, 1934.10), 2쪽.

만주방적주식회사는 생산된 제품에 요양의 역사적 건축물로 유명한 白塔을 그려 遼塔이라는 명칭을 붙여 상표로 삼았다. 주요한 목적은 중국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다. 상표를 백탑이라 하지 않고 요탑이라 정한 것은 “요탑이라는 명칭은 탑 자체의 고유명사가 아니면서도 요양의 백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단순히 백탑이라고 칭할 경우 다른 지방에도 백탑이 존재하므로 어느 지역의 백탑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⁶³⁾ 만주방적주식회사는 이와같은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요탑을 상표명과 도안으로 결정하여 북경의 상표국에 등록을 청원하였다. 이로부터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전략은 비록 자본의 내원이 일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현지에 기업을 개설함으로써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현지 중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요양지방을 대표하는 현지기업임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도표 8) 만주방적주식회사 상표 도안



63) 日本外務省, 『滿洲紡績株式會社』, 『本邦會社關係雜件』第六卷(1925), 4쪽.

만주방적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면사를 살펴보면 16번수 3,400包, 20번수 11,800포, 10번수 26,400포로서 대부분 20번수 이하의 중저급품을 생산하고 있었다.⁶⁴⁾ 생산된 제품은 일본면화주식회사와 동양면화주식회사 두 회사의 출장소에 견본을 보내 판매를 위탁하였으며, 현물은 회사가 직접 중국 상인에게 인도한 이후 대금을 두 회사로부터 수취하였다. 판매 지역은 하얼빈, 철령, 장춘, 사평가, 무순, 공주령, 안동의 일본면화주식회사 및 동양면화주식회사의 출장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밖에도 요양, 봉천의 일본 및 중국상, 그리고 봉천피복창에도 판매하였다.⁶⁵⁾

도표 9) 만주방적주식회사 제품의 지역별 판매 상황 (1924-1926)⁶⁶⁾

지역별	1924.10-1925.4		1925.5-10		11월		12월		1926.1	
	면사	면포	면사	면포	면사	면포	면사	면포	면사	면포
合爾濱	30		50	2,000	30					
長春	210	200	900	18,940		2,900		4,000		1,500
公主嶺	115		90							
四平街	52		15							
鐵嶺	925	400	389				50		150	
奉天	106	10,062	294	2,400		400				
安東	157		258		69		2		25	
無順	32	200	29		10					
營口	239	400	1,925	43,240	75	2,000		500		5,200
瓦房店			288		10					
遼陽	62	2,990	187	7,360			10	200	50	100

* 면사: 16번수(단위: 俵), 면포: 粗布(단위: 反)

64) 陳眞編, 『中國近代工業史資料』第二輯(北京:三聯書店, 1958), 581쪽.

65) 日本外務省, 『滿州紡績株式會社』, 『本邦會社關係雜件』第六卷(1925), 33쪽.

66) 日本外務省, 『滿州紡績會社ノ業態ニ關スル件』, 『本邦會社關係雜件』第七卷(1926), 17쪽.

V. 結論

일본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방직공업은 중추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총 생산량 가운데 수출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일본에게 수출시장의 확대는 국가경제의 성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시장, 특히 동북시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방직공업은 초기 발전의 과정에서부터 협소한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중국과 만주에서 판매시장을 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수출 지향의 높은 무역 의존도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역상의 장애는 바로 일본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며, 중국 동북지역은 일본 산업자본가에게 ‘생명선’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서 인식되었다.

일본 방직공업은 국가권력의 정책적, 제도적 지지 하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원면 수입세와 면제품 수출세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지지는 일차대전 시기 일본 방직공업이 중국 동북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출현하였는데, 수출품의 운송에 대한 국경관세의 경감과 삼선연락운임제가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이에 힘입어 동북시장에서 일본 면제품은 점유율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지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으며, 일본은 이 지역을 중국 관내와는 구별되는 독점적 시장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일차대전 기간 동안의 전시호황에 힘입어 크게 성장한 상해 등 중국 방직공업에서 생산된 면제품이 동북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일본의 수입품이 구축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일본 방직업계는 이 지역에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기업을 건설하고,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이와같은 경제환경의 변화 속

에서 동북지역에서 일본자본으로 최초로 설립된 방직기업이 바로 만주방적주식회사였던 것이다. 따라서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설립은 일본 방직공업과 중국 동북시장 사이의 관계와 그 성격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 방직공업에게 중국 동북지역은 종래 상품의 수출시장으로부터 자본의 투자시장으로서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권력은 초창기 일본 방직공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동북에서 일본자본 방직기업이 설립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도 국책회사 만철을 통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만주방적주식회사는 일본 방직업계의 대방적회사인 부사와사방적주식회사의 주도하에 만철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설립되었으며, 일본정부는 이 회사를 재만방의 건설과 경영의 시금석으로 간주하여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상해, 청도, 천진 등 중국 관내의 在華紡이 설립과 경영의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주도적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在滿紡은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주도적 성격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일정한 차별성이 존재하였다.

만주방적주식회사는 일본 방직자본과 국가권력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지원 하에 중국 동북시장의 확보라는 국책적 견지에서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만철을 통해 만주방적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함으로써 대주주의 신분으로 기업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위해 대주주로서 이사회의 구성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기업의 설립 과정에서 철도 연선지역에 방대한 부지를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제공하였으며, 원료 면화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설립을 전후하여 대대적으로 면화의 개량과 증산에 착수하였다. 이와같은 경영환경의 조성은 일개 민간 기업의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서 드러난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는 만주방적주식회사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지지

가 기업의 조속한 설립과 경영의 정상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만주방적회사의 이와같은 성격은 오히려 이후 양국간 외교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대응을 야기하였으며, 민간에서의 반감도 불가피하게 조성되었다. 따라서 만주방적주식회사의 경영과 재만방의 설립은 이후 중국 동북시장에 대한 일본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매우 주요한 변수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만주방적주식회사, 중국방직공업, 일본방직공업, 중국동북지역,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논문투고 : 2014.12.11 / 논문심사완료 : 2014.12.22 / 논문게재 확정일 : 2014.12.23)

참고문헌

신문, 잡지류

『時事新報』

『萬朝報』

『滿洲新聞』

『ダイヤモンド』

『大日本紡績連合會月報』

『滿鐵調査月報』

정부문서

日本外務省, 『支那紡績業ニ關スル雜報』分割二, 1923.

日本外務省, 『支那各種紡績會社報告(6) :滿洲紡績株式會社』, 1925.

日本外務省, 『本邦會社關係雜件』第六卷, 1925.

日本外務省, 『本邦會社關係雜件』第七卷, 1926.

關東廳農林課, 『關東州に於ける棉作獎勵』, 1934.10.

滿洲紡績株式會社, 『滿洲紡績株式會社設立趣意書』, 1924.10.1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調査課, 『滿洲の纖維工業』, 1931.

단행본

金志煥, 『鐵道로 보는 中國歷史』, 학고방, 2014.

嚴中平,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1957.

劉國良, 『中國工業史-近代卷』, 科學技術出版社, 1992.

北京大學法律係國際法教研室編, 『中外舊約章彙編』第二冊-1, 三聯書店, 1959.

北京大學法律係國際法教研室編, 『中外舊約章彙編』第二冊-2, 三聯書店, 1959.

北京大學法律係國際法教研室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1, 三聯書店, 1959.

陳眞編, 『中國近代工業史資料』第二輯, 三聯書店, 1958.

陳眞編, 『中國近代工業史資料』第四輯, 三聯書店, 1961.

西川喜一, 『棉工業と綿絲綿布』, 日本堂書房, 1924.7.

石原實, 『滿洲綿業の概觀』, 橫濱正金銀行調查課, 1941.5.

日本輸出綿織物同業組合聯合會, 『支那に於ける綿織物に就て』, 1924.2.

濱田峯太郎, 『支那に於ける紡績業』, 日本堂書店, 1923.

飯島幡司, 『日本紡績史』, 創元社, 1949.

東洋紡績株式會社, 『東洋紡績七十年史』, 1953.5.

米谷榮一, 『近世支那外國貿易史』, 生活社, 1939.

井上潔, 『我國の紡績業に就て』, 神戸高等商業學校商業研究所, 1921.

高村直助, 『近代日本綿業と中國』, 東京大學出版會, 1982.

菊池貴晴, 『中國民族運動の基本構造』, 汲古書院, 1974.

논문

金志煥, 「中國近代綿業史의 研究動向 紹介」, 『中國近現代史研究』6輯, 1998.

金志煥, 「安奉鐵道 부설과 중국 동북지역 신유통망의 형성」, 『중국근현대사연구』87輯, 2013.12

Kang Chao, “The Growth of a Modern Cotton Textile Industry and the Competition with Handicrafts”, 『China’s Modern Economy in Historical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江口圭一, 「滿洲事變と東アジア」, 『世界歴史』24, 岩波書店, 1976.

副島円照, 『日本紡績業と中國市場』, 『人文學報』33, 1972.2.

楊天溢, 『中國における日本紡績業と民族紡との相克』, 『日中關係と文化摩擦』, 1982.1.

A Study on the Backgrounds and Operation of
Foreign Capital Firm Foundation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 With a focus on the Manchurian Cotton Mills
Corporation in the 1920s

Kim, Ji-hwa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was a traditionally very important export market for the Japanese cotton textile industry. As the Chinese cotton textile industry made huge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World War and rapidly supplied cotton goods to the region, however, they started to restrict the Japanese cotton goods in the region. Furthermore, the Chinese government raised the customs duty right after the WWI and contributed to the fast loss of competitive edge in pricing of Japanese cotton goods exported to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Under the background, the Japanese cotton textile industry finally made direct capital investments into the region, set up cotton textile companies, and started to produce cotton goods in the region. That change gave birth to the first cotton textile company founded by the Japanese capital in the region, Manchurian Cotton Mills Corporation.

Manchurian Cotton Mills Corporation received active supports and sponsorship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the foundation to manag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capital investments into

the corporation by purchasing stocks through its state policy company, South Manchurian Railway Corporation, offered a part of its railroad zone as a site for the corporation at a low cost, and supplied the coal produced by the Fushun Colliery Company to the corporation. In addition, it extensively carried out a project of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and making improvements to raw cotton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for the convenience of raw material procurement.

Having access to the active suppor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Manchurian Cotton Mills Corporation was able to go through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stag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increasingly worsening China-Japan relations right after the end of WWI, however, the corporation could no longer maintain its smooth management on the back of support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people had hostility against Japan and developed an anti-Japanese movement. The worsening China-Japan relations emerged as a new obstacle to the management of the Manchurian Cotton Mills Corporation enjoying the suppor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Key Words : Manchurian Cotton Mills Corporation, Chinese cotton textile industry, Japanese cotton textile industry,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South Manchurian Railway Corporation

